

2020년 11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종목 변화 속 하락 마감

장 후반, 코로나로 인한 봉쇄 소식 등으로 하락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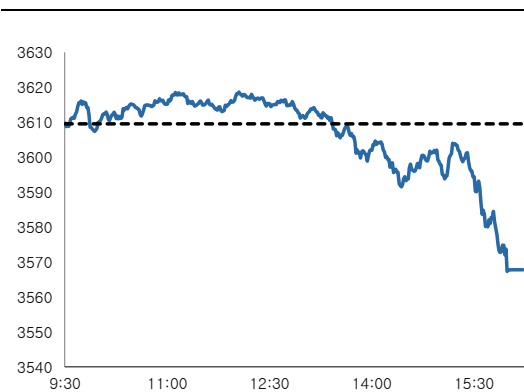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매물 소화 과정 속 종목 장세

미 증시는 화이자의 긍정적인 코로나 임상 최종 데이터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장중 연준위원들 발언과 테슬라(+10.20%) 등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상승 하기도 했으나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이 크게 상승했을 뿐 대부분은 변화 제한. 이런 가운데 3 분기 미국 기업들의 파산 급증 소식과 뉴욕시의 학교 봉쇄 조치로 매물 출회되는 등 코로나 영향으로 하락 마감(다우 -1.16%, 나스닥 -0.82%, S&P500 -1.16%, 러셀 2000 -1.26%)

미 증시는 ①화이자 임상 최종 데이터 발표 ②연준위원들 발언 ③개별 기업 이슈에 의해 변화. 화이자(+0.78%)가 바이오엔텍(+4.04%)과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 최종 데이터를 발표. 임상 대상 중 확진자 170 명을 분석했는데 95%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 화이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일안에 FDA 및 일부 국가들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 그러나 시장은 처음 데이터를 발표했던 시기와 달리 영향은 크지 않았음. 오히려 화이자 등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차익 욕구를 높이는 모습. 더불어 장 후반 WHO 가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아 코로나 통제에 더 힘을 줘야 한다고 발표. 여기에 뉴욕시가 코로나 급증을 이유로 학교 봉쇄를 단행하자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차익 매물 출회되며 지수는 낙폭 확대. 특히 3 분기 파산 급증 소식에 금융주 중심으로 확대

한편, 존 윌리엄스등 연준위원들은 백신 관련 뉴스는 낙관적이며 이로 인해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 더불어 경제는 예상 못할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주택과 내구재 등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 여기에 재정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다면 몇 달안에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언급. 대체로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시장 변화를 크게 이끌지는 못했으나 주식시장 반등 요인으로 작용. 여기에 테슬라(+10.20%)가 모건스탠리의 투자이견 및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출발 후 장중 쏠림 현상이 나오며 급격하게 그 폭을 확대 한 점도 영향. 특히 목표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은 540 달러로 제시한 점이 특징. 더불어 GM(+1.76%)은 전기차 산업 가속화 전략 발표로 상승하는 등 종목들은 개별 이슈로 인해 변화폭이 컸으나 대부분 종목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라클	Close	D-1	지수종라클	Close	D-1
KOSPI	2,545.64	+0.26	홍콩항셍	26,544.29	+0.49
KOSDAQ	851.74	+1.46	영국	6,385.24	+0.31
DOW	29,438.42	-1.16	독일	13,201.89	+0.52
NASDAQ	11,801.60	-0.82	프랑스	5,511.45	+0.52
S&P 500	3,567.79	-1.16	스페인	7,981.50	+0.59
상하이종합	3,347.30	+0.22	그리스	708.16	+2.48
일본	25,728.14	-1.10	이탈리아	21,622.66	+0.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쏠림 현상 속 10% 넘게 급등

화이자(+0.78%)와 바이오엔텍(+4.04%)은 양호한 백신 최종 데이터 발표로 상승 했다. 반면 백신 개발 경쟁사인 모더나(-4.57%), 아스트로제네카(-1.76%)등은 하락했다. 테슬라(+10.20%)는 모건스탠리가 자동차 판매만 보지 말고 여러 서비스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GM(+1.76%)은 전기차 제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자 상승했으며, 포드(+0.80%)도 관련 이슈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타겟(+2.34%)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와 시장 점유율 증가, 여행 중단에 따른 소비 증가로 방문시 매출 증가 등을 언급하자 강세를 보였다. 줌비디오(+3.34%)는 장중 뉴욕시가 학교 봉쇄 발표하자 상승했다.

아마존(-0.96%), MS(-1.32%), 알파벳(-1.19%), 페이스북(-1.10%) 등 대형 기술주는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주택 개량 업체인 로리어스(-8.21%)는 양호한 실적 발표 했으나 그 폭이 미미해 주택 개량 지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보잉(-3.21%)은 교통안전국이 보잉 737맥스 비행 금지 해제 소식에 상승 출발 했으나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NVIDIA(+0.05%)는 장 마감 후 양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1% 가까이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5%	대형 가치주 ETF(IVE)	-1.26%
에너지섹터 ETF(OIH)	-0.73%	중형 가치주 ETF(IWS)	-1.30%
소매업체 ETF(XRT)	+0.11%	소형 가치주 ETF(IWN)	-1.28%
금융섹터 ETF(XLF)	-0.94%	대형 성장주 ETF(VUG)	-0.91%
기술섹터 ETF(XLK)	-1.07%	중형 성장주 ETF(IWP)	-1.0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3%	소형 성장주 ETF(IWO)	-1.45%
인터넷업체 ETF(FDN)	-0.33%	배당주 ETF(DVY)	-1.51%
리츠업체 ETF(XLRE)	-1.6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3%
주택건설업체 ETF(XHB)	-0.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8%
바이오섹터 ETF(IBB)	-2.02%	미국 국채 ETF(IEF)	-0.03%
헬스케어 ETF(XLV)	-1.86%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0.65%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0.50%	Long/short ETF(BTAL)	-0.8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4.60	-2.88%	+4.25%	+19.18%
소재	436.56	-0.82%	+0.20%	+6.16%
산업재	735.92	-0.45%	+2.70%	+8.56%
경기소비재	1,243.98	-0.78%	+0.06%	+0.46%
필수소비재	685.31	-1.30%	+0.06%	+1.97%
헬스케어	1,270.51	-1.76%	-1.80%	+3.06%
금융	453.45	-0.91%	+1.02%	+10.52%
IT	2,114.41	-1.11%	-0.79%	+0.89%
커뮤니케이션	211.52	-0.97%	+0.03%	+5.37%
유틸리티	324.87	-1.93%	-3.77%	+0.38%
부동산	229.74	-1.67%	+0.17%	+3.9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과정 속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5%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6.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집중 된 코스닥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차별화 속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대체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백신 개발 등에 기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점도 특징이었다. 미 증시 또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일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물 소화 과정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도 코로나 급증을 이유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장은 긍정적인 백신 데이터와 급증하는 코로나가 충돌하며 종목 장세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11 월 초만 해도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호재로 받아들이며 시장이 강한 상승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체를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며 종목 차별화가 크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증시를 비롯해 중국과 유럽 등 글로벌 각국의 주식시장은 종목들의 변화가 극단적으로 나뉘지는 모습이다. 그것도 연속성이 있기 보다는 하루 하루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한국 증시도 이러한 과정 속 ①코로나 급증과 백신 ②테슬라 효과 ③NVIDIA 실적 결과 등으로 매물 소화 과정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단독 주택 착공건수 2007 년 이후 최고

10 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145.9 만건)이나 예상(146.0 만건)을 크게 상회한 154 만건을 기록했다. 단독 주택건물 착공은 2007 년 4 월 이후 최고치인 117.9 만건을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건축 허가 건수는 전월(154.5 만건)과 같았으나 예상(156 만건)을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제한된 움직임

국제유가는 긍정적인 화이자의 백신 데이터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OPEC+ 국가들이 11 월 30 일~12 월 1 일까지 있을 장관급 회담에서 산유량 감산 기간을 3~6 개월 연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한편, EIA 는 지난 주 미국 원유 재고가 76.8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해 예상(170 만 배럴)을 하회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가솔린은 260 만 배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수요 둔화 이슈를 자극해 상승은 제한 했다.

달러화는 화이자의 긍정적인 코로나 백신 데이터 발표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뉴욕시는 학교 봉쇄를 발표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강세로 전환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확대했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관련 EU 와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 속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갔다.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멕시코 페소화는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혼조 양상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주택착공건수가 견고하게 발표하자 상승 출발 했었다. 여기에 긍정적인 화이자 백신 데이터 소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장 후반 여전히 코로나가 급증하자 뉴욕시가 학교를 봉쇄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분을 반납해 보험권에 머물렀다.

금은 긍정적인 백신 데이터 소식이 전해지자 0.6%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백신과 코로나 급증이 충돌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1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1.82	+0.94	+0.89	Dollar Index	92.425	+0.01	-0.66
브렌트유	44.34	+1.35	+1.23	EUR/USD	1.1853	-0.08	+0.65
금	1,873.90	-0.59	+0.66	USD/JPY	103.86	-0.32	-1.49
은	24,558	-0.84	+0.62	GBP/USD	1.3269	+0.17	+0.36
알루미늄	1,998.00	+1.04	+4.17	USD/CHF	0.9114	-0.02	-0.64
전기동	7,088.50	+0.29	+2.96	AUD/USD	0.7305	+0.05	+0.33
아연	2,747.00	+2.14	+4.69	USD/CAD	1.3078	-0.21	+0.11
옥수수	430.50	+0.88	+0.82	USD/BRL	5.3632	+0.73	-0.68
밀	606.50	+0.58	+0.08	USD/CNH	6.5617	+0.21	-0.85
대두	1,175.75	+0.51	+2.02	USD/KRW	1103.80	-0.25	-0.56
커피	122.85	+2.80	+9.74	USD/KRW NDF1M	1106.96	+0.08	-0.5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69	+1.15	-10.68	스페인	0.079	+0.60	-7.60
한국	1.604	-1.80	-6.60	포르투갈	0.046	+0.50	-7.60
일본	0.018	-0.70	-2.30	그리스	0.658	-0.70	-15.70
독일	-0.554	+0.90	-4.70	이탈리아	0.653	+1.50	-8.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